

OVERWATCH 2

HEROES ASCENDANT

행운아



MELISSA SCOTT 단편 소설

이야기  
*MELISSA SCOTT*

그림  
*BORG SINABAN*

편집  
*CHLOE FRABONI*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AMBER PROUE-THIBOD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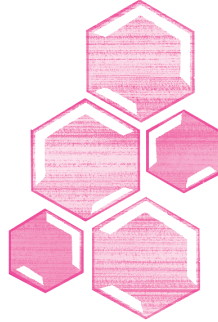
디자인  
*JESSICA RODRIGUEZ*

세계관 자문  
*MADI BUCKINGHAM, IAN LANDA-BEAVERS*

게임 팀 자문  
*JEFF CHAMBERLAIN, GAVIN JURGENS-FYHRIE,  
PETER C. LEE, MIRANDA MOYER, DION ROGERS*

도움 주신 분  
*IAN LANDA-BEAVERS, MADDY COOK*





**잭**은 텅 빈 거리를 빠르게 질주하다가 어둠이 짙게 드리운 왼쪽 건물을 끼고 돌았다. 전쟁 로봇이 접근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듣던 중 바이저가 신호를 한 번, 두 번 출력했다. 널 섹터 병력이 좁은 교차로를 지나 잭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서두르면 피할 수도 있었지만, 놈들은 접선 장소와 잭 사이에 위치한 상황이라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잭은 고개를 들고 지붕을 살폈다. 주위의 3, 4층 건물은 예전에는 거주지였지만 지금은 용도가 불확실했다. 평평한 지붕은 양쪽 측면이 경사져 있었는데, 바로 지난주 침공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원으로 썼을 것 같았다. 잭이 바라던 대로 비상 사다리도 있었다. 사다리를 통해 올라가 지붕에서 위치를 잡으면 전쟁 로봇 무리가 바로 앞 큰 거리를 가로지를 때 매복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잭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움직였다. 펄쩍 뛰어 금속 가로대를 잡은 그는 건물 측면을 타고 빠르게 올라갔다. 비상 사다리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나사가 잭의 무게에 삐걱댔지만 지붕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잘 버텨주었다. 거기에는 정원 대신 폭이 좁은 굴뚝 통풍관만 있었다. 잠시 드론이 있는지 하늘을 올려다본 그는 옆 지붕으로 훌쩍 뛰었다. 지붕 사이의 벽은 너무 낮아서 엄폐물로 적당하지 않았고, 재질도 벽돌이었다. 잭은 다음 지붕으로 이동해 굴뚝 그림자에 웅크리고 숨었다. 그다음 지붕 가장자리로 조심스럽게 나아가 거리를 내려다봤다.

잭의 예상이 적중했다. 전쟁 로봇 세 대가 느슨한 V대형으로 교차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대형 포격 유닛이 주위를 살피는 중 어깨에 장착된 포가 천천히 좌우로 흔들렸다. 잭은 씩 웃었다. 포격 유닛은 강력하긴 했지만 이동 속도가 끔찍하게 느렸기에, 한 놈만 제압하고 나면 나머지 놈들은 잔해 너머로 이동하지 못하거나 빠르게 퇴각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었다.

지붕 너머로 살짝 몸을 내민 그는 펄스 소총을 견착한 채 발사해 첫 번째 로봇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탄두가 거대한 기계의 중앙 부위를 강타하자 로봇은 뒤로 흔들렸고, 잭은 공격 대상을 변경해 포를 겨냥했다. 한 쌍의 포가 폭발해 로봇의 어깨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두 번째 쌍은 살짝 스쳤을 뿐이었다. 공격 대상을 다리로 변경한 잭은 맨 앞에 있던 로봇에게 다리 하나만 남겨주었다. 나머지 두 포격 유닛이 무기를 빼 들고 지

봉선을 향해 마구잡이로 발포했다. 몸을 낮춘 채 새 업페물을 찾던 잭은, 거리 반대편 지붕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날아와 금속성 소음을 내며 착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쟁 로봇 지원군이 있었던 것이다.

벽돌과 암석이 날아들었고, 잭은 육지거리를 내뺄으며 뒤로 굴러 피했다. 몸을 세운 그는 소총을 다시 발사해 널 섹터 돌격병을 제압했지만 뒤에 또 한 놈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놈이. 잭은 놈들을 처치한 후 거리에 있던 포격 유닛을 바라봤다. 첫 번째 로봇은 감지 장치가 오작동하여 빙빙 돌고만 있었지만, 나머지 두 대가 다시 포격했다. 로켓을 꺼내 든 잭은 놈들이 딛고 있는 지면에 갈겼다. 거리가 섬광과 열기로 달아올랐고, 이내 잣아든 자리에는 깨진 아스팔트 사이 전쟁 로봇 잔해가 즐비했다. 로봇 한 놈은 포를 모두 잃었지만, 아직 다리가 세 개 남은 채 공격 대상을 찾기 위해 불꽃을 튀기며 주위를 둘러봤다. 잭이 로켓을 쏘자 마지막 남아 있던 로봇도 도로 위에 쓰러진 채 연기만 내뿜었다.

지붕 가장자리에 몸을 기댄 잭의 귓가에 자신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돌격병을 피하다가 다친 갈비뼈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미리 발견했어야 하는데. 첫 포격 유닛을 확실히 처치했어야 했다. 잭은 뺨뺨한 어깨를 풀려 이리저리 움직였다. 이번엔 그나마 운이 좋았다. 잭은 몸을 낮추고 가장 가까이 있던 비상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가면서 접선 장소를 바라봤다. 드디어 도착한 것이다.

도시의 이쪽 구역에서는 전투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다. 전기가 끊기고 거리를 따라 창문이 전부 깨져 있었지만, 화재가 일어난 건물은 없었다. 주민들은 방공호로 가거나 지역을 탈출한 상태라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다. 사실 불길할 정도로 조용했다. 아스팔트 위로 뿌려진 유리 조각을 밟고 지나가는 잭의 발소리만이 울릴 뿐이었다. 잭은 센서를 확인했다. 널 섹터는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집중하고 있는 듯 보였다. 다행인 일이었다. 방해 없이 정보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접선 장소가 코앞이었다. 낮은 건물 사이로 날렵한 현대식 3층 타워가 솟아 있었다. 문은 잠긴 채 빗장이 걸려 있었고, 1층 창문에는 무거운 금속 셔터가 내려져 있고, 위층 창문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깨진 네온 튜브가 장식되어 있었다. 지붕에는 광고판이 있었는데, 총에 맞아 귀통이가 떨어져 나간 채 불은 들어와 있지 않았다. 잭은 지붕을 유심히 살폈지만 아무도 없는 듯 보였고, 옆 건물 지붕도 마찬가지였다. 센서에 수상한 열 신호가 감지되지도 않았다. 정보원은 왼쪽 골목에 지붕으로 가는 통로가 있다고 했다. 창문과 석재 장식을 이용한다면 지붕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지붕까지 올라간 잭은 지붕과 인근 건물을 훑어보고, 건물 아래에서 사람이 접근하는 모습이 잘 보이는 광고판 옆에 자리를 잡았다. 조금 일찍 왔으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정보원만 오면 이제 길고 힘들었던 사냥도 드디어...

괜히 희망 품지 말자. 잭은 그런 생각을 접고 주위를 살폈다. 당장 임박한 위협이 먼저였다. 멀리서 널 섹터 선봉대의 공격으로 피어오른 연기가, 방향을 바꾼 바람에 실려 열린 플라스틱 타는 냄새를 전했다.

*먼지, 열기, 이명, 허벅지에 작렬하는 환상통...*

잭은 과거의 기억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와 아나를 떠올렸다. 새로운 죄책감으로 옛 기억을 이겨낸다는 전략이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서로를 찾아낸 다음 다시 헤어지려니 마음이 아팠지만,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잘 알았다. 옴닉 사태 이후로는 항상 알았다.

아나의 기억이 사라지고, 빅토리아 노트의 산발한 머리와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 떠올랐다. 옴닉 사태 초기에 미국에게 절실했던 승리를 가져다 준, 군인 강화 프로그램의 천재. 빅토리아는 옴닉 사태 중 첫 실전

**“행운아로군.” 레예스가 소매에 난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며 중얼댔다. 노트는 레예스와 잭 모두를 비웃었다.**

**“행운아? 행운은 내가 너희를 골랐을 때 끝났어.” 노트가 말했다. “너희를 처치하려면 총알 한 발로는 어림도 없을 테니까.”**

배치 때 합류했다. 수송선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방에 널린 로봇 잔해를 밟고 걸으며 자기 숨씨를 보러 왔다 했었다. 분대의 반 이상을 잃고 생존자는 대부분 부상을 입었지만, 강화 군인 두 명이 있으니 확실히 달랐다. 분대는 교차로를 사수했고, 소규모긴 했지만 움닉의 파상 공격을 물리쳤다. 잭은 세 군데 총상을 입었는데, 대부분 스친 상처에 불과해서 복귀할 때까지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행운아로군.” 레예스가 소매에 난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며 중얼댔다. 노트는 레예스와 잭 모두를 비웃었다.

“행운아? 행운은 내가 너희를 골랐을 때 끝났어.” 노트가 말했다. “너희를 처치하려면 총알 한 발로는 어림도 없을 테니까.”

잭은 수송선 안을 둘러봤다. 피와 달궈진 쇠 냄새, 그리고 일반병으로 가득했다. 그도 몇 개월 전까지는 일반병이었다. 강화 병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망했거나 죽어가고 있었다. 부상자가 너무 많았지만 위생병과 의료 물자는 부족했다. 모두 잭의 책임이었으나, 잭은 그들을 실망시켰다.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알고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오늘 일만 보면 이번 작전을 강화 프로그램의 승리로 보기는 무리지.” 잭이 중얼거렸다. 빅토리아가 혀를 찼다.

“나폴레옹이 그러지 않았나? 실력 좋은 장군보다 운 좋은 장군이 낫다고? 오늘 이후로는 너희 둘의 운을 한번 믿어 보지.”

빅토리아가 몸을 돌렸고, 잭과 레예스는 이글거리는 시선을 교환했다. 이게 운 때문이었다면 둘 다 그런 운 따윈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센서가 울리자 잭은 재빨리 현실로 돌아와 멀리 움직이는 대상에 집중했다. 지붕창 위로 빛이 움직이면서, 떨어진 지붕 타일이 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상한 움직임에 대응하려 잭은 그림자로 몸을 숨겼다. 빛나는 금속 조각이 날아와 광고판에 부딪혀 잭이 있던 지붕의 반대쪽 모서리에 떨어졌다. 방아쇠에 울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지만 잭은 참아냈다. 배후에서 정보를 유출한 자가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 너무도 오래 기다렸기에. 놈이 남긴 흔적을 따라오다 보니 이제 오버워치에 일어난 일의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보라색 섬광이 번쩍이더니 호리호리한 형체가 나타났다. 도라도에서의 만남으로 인해 누군지 즉시 알아본 잭은 숨죽여 욕을 내뱉고, 광고판의 저쪽으로 굴러 펄스 소총을 견착했다. 빠르게 끝낼 생각이었다.

솜브라가 잭의 움직임을 바로 눈치채고 손을 들어 보였다. “잠깐만!”

“내 정보원을 어떻게 한 거지?” 잭이 질문을 던졌다. 그는 바이저를 통해 탈론의 함정이 있지는 않나 찾았다. 이럴 시간 없는데... 탈론이 정보원을 처치했다면 모든 게 원점이었다...

“잘 생각해봐.” 솜브라가 손을 올린 채 히죽댔다. “솔직히 이미 눈치챈 줄 알았는데.”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고, 잭은 미간을 찌푸렸다. “네가 정보원이구나.”

“몸소 납셨지.”

“그럼 얘기는 끝이다.” 잭은 안정적인 사격 자세를 유지한 채 뒤로 물러섰다. 솜브라는 수년간 잭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면서 자신의 뒷선으로부터 따돌렸던 것이다. “네 말은 하나도 못 믿어.”

“진정해.” 솜브라가 짜증을 냈다. “내가 탈론 소속인 건 맞지만 나는... 뭐, 프리랜서라고나 할까? 전에 너와 함께 다니던 그...”

“설마 레예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그으래, 너희한테는 좀 불편한 얘기겠지만. 좋아, 알았어. 나도 나는 못 믿으니까. 하지만 내가 아주 오래, 정말 오래 추적하던 큰 건수가 하나 있었거든? 알고 보니 너도 같은 걸 쫓고 있더라.” 솜브라가 손을 내리자 손바닥에서 빛이 휘어지며 춤을 쳤다. “보여줄게.”

“그래.” 잭은 펄스 소총으로 솜브라의 가슴을 겨냥한 채 말했다. 그녀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잘 알았기에.

솜브라는 어처구니없다는 듯 눈을 굴렸고, 손바닥에 있던 빛이 사라졌다. “좋아, 알았어. 너 의심 엄청 많은 까브론이구나, 그치?”

“살아 있는 까브론이지.” 잭이 답했다.

“행운아네.” 솜브라가 씨익 웃었다. “우리는 같은 놈을 쫓고 있어.”

“계속해봐.” 잭이 말했다.

“그래, 여기 취리히에 있는 UN 보관 시설에 내 증거가 있어.” 솜브라가 설명했다. “오버워치 스위스 본부의 잔해가 있는 시설 말이야. 왜, 네가 죽은...? 곳 있잖아. 그걸 찾게 도와줘. 그럼 그 증거를 줄 테니.”

잭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거절한다. 그건 네 임무지 내 임무가 아니야.”

“아, 그러셔?” 솜브라는 잭 앞에 홀로그램 화면을 재생했다.

### 감시 기지: 그랜드 메사에서 도난당한 실험 중인 무기

잭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UN이 압류한 무기를 빼내온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였다. 세상 사람들도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탈론은 돕지 않아.” 한 걸음 더 물러선 잭은 솜브라의 반응이 궁금했다.

# “내가 말했잖아, 친구.” 솜브라가 답했다. “이건 탈론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손해 볼 것도 없잖아? 이제 잃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말했잖아, 친구.” 솜브라가 답했다. “이건 탈론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손해 볼 것도 없잖아? 이제 잃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잭은 머뭇거렸다. 솜브라의 제안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상황이었다. 만약 신뢰하는 사람들과 팀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그런 곳에 진입하는 건 힘들었다. 널 섹터의 공격으로 경비가 훨씬 삼엄해졌을 테니, 만약 솜브라가 뒤통수를 치려고 꾸민 짓이라면 그야말로 무덤에 걸어 들어가는 격이었다. 솜브라는 재미로 잭이 이룩한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후 죽게 내버려둘 만한 부류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직접 보지 않는다면... 솜브라 말이 거짓이라 해도, 여태까지 거짓말만 늘어났다고 해도, 잭이 범죄 현장에 들어가 최소한 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할 절호의 기회를 준 것은 맞았다. 이걸 그날의 잔해를 살펴볼 유일한 기회였다. 분명 뭐라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좋아. 하지만 경비 인력은 피하고, 비살상으로 진입한다.”

“손가락 걸고 약속.” 솜브라가 한쪽 어깨를 으쓱 들어 보였다. “널 섹터가 공격하고 있으니 주의도 분산되잖아? 경비 인력의 반은 널 섹터를 상대하고 있을 테니 말이야.”

맞는 말이었다. 성공 확률도 그래서 높았고. “이 공격, 탈론의 계획인가?”

“난 공과 사는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이야.” 솜브라가 답했다. “갈 거야?”

솜브라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몸을 돌려 지붕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잭은 이 일이 바보 같고 위험하다는 생각에 다시 욕을 내뱉었다. 하지만 솜브라의 제안은 여태까지의 여정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펄스 소총을 준비한 잭은 솜브라의 뒤를 따랐다.

UN 보관 시설은 산업 지구에 있었다. 번잡한 도시와는 달리, 드문드문 개성 없는 창고와 대충 짓고 있는 건물들만이 늘어선 곳. 보관 시설은 그래도 잘 지어진 편이었고, 전기 울타리와 철조망 뒤 창문 없는 가파른 벽이 우뚝 솟아 있었다. 수위실은 하나뿐이었다. 견고한 벽은 모래주머니로 보강되어 있었고, 불안해 보이는 경비 세 명이 자동소총을 들고 경계 중이었다. *솜브라의 말이 맞았어.* 센서를 보며 잭이 생각했다. 경비 인력은 대부분 널 섹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터라 평소보다 훨씬 적었다. 그래도 경비를 뚫고 지나가려 한다면 경보가 울릴 텐데. 잭은 솜브라를 쳐다봤다. “계획이 있겠지?”

“썩. 저 정도면 처리 가능하겠지?” 솜브라는 옆 건물로 이어진 쓰레기가 널부러진 오른쪽 골목을 가리켰다. “난 가능한데.”

잭은 경비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솜브라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섰다. 들어서자마자 저장 시설로 이어지는 길은 낙서가 덮인 콘크리트 벽에 가로막혔다. 그 반대편에 있던 창고 벽에는 창문이 없고 도색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내부에서 보강된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다.

“빨리.” 솜브라가 말했다.

잭은 골목 끝에 서 있던 솜브라에게 다가갔다. 앞의 벽은 거의 3층 높이였고, 위에는 전기 철조망이 더 많이 둘러져 있었다. “왜 막다른 길로 왔는지 궁금하지?”

“아니.” 잭이 고개를 저었다.

“똑똑해.” 솜브라는 붉게 빛나는 홀로그램 화면을 꺼내 손가락으로 버추얼 컨트롤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머리 위에서 빛이 번쩍였다. 벽 상단에 사각형이 생겨났다. “저게 보안 철책 통제기야. 저거 없으면 전력 변동 잡기가 어려웠나 보네. 잘 됐어.” 솜브라는 빠르게 손가락을 놀리며 말했고, 화면에 더 많은 기호가 깜빡였다. “유감이지만 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왜지?”

“너무 수상하잖아!” 솜브라는 눈알을 굴리며 잭의 목소리를 흉내 냈다. “저 위로 올라가서 이쪽 구역 전력을 차단하려고. 그러려면 네가 위로 올려줘야 해.”

“벽을 넘으려는 거군.”

“이해가 빨라서 좋네.”

잭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며 솜브라가 어깨를 밟고 오를 수 있도록 몸을 굽혔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세우면서 솜브라의 발목을 가볍게 잡았다. 고양이처럼 쉽게 균형을 잡은 솜브라는 통제기에 손을 뺐으며 흑 뛰어올랐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음이 들렸다. *접근 코드가 필요합니다. 경보 발령 10 초 전. 9, 8...*

“솜브라...”

다시 한 번 찰칵 하는 소리가 들리자 기계음이 멈추었다. “정말로 걱정했던 건 아니지?” 솜브라가 말했다. 텅하고 철조망을 자르는 소리가 나더니 솜브라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고개를 든 잭은 벽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앉은 솜브라를 발견했다.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철조망은 벌어져 있었다. “올라와.”

잭은 잔뜩 몸을 웅크렸다가 도약했고, 두 손으로 간신히 벽 위를 잡았다. 새삼 나이를 실감하며 잠깐 공공거리던 잭은 몸을 끌어올려 솜브라와 나란히 섰다. 펄스 소총을 안은 잭은 창문 하나 없는 건물 벽을 스캔했다. “카메라는?”

“처리했지.” 솜브라 앞에 네 개의 홀로그램 화면이 보였다. 솜브라는 화면을 훑히 넘기면서 빠르게 조정했다. “왼쪽에 적재 구역이 있어, 보여? 내가 신호하면 뛰어가.”

잭은 뒤통 준비를 마쳤다.

“가!”

잭이 적재 구역으로 달려갔고, 손쉽게 부두로 몸을 날려 출입구 돌출부에 엎드렸다. 철조망이 지직대더니 솜브라가 그림자 속에서 체서 고양이처럼 씩 웃으며 잭 옆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의 전자 잠금 장치를 제



# 책은 이 계획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어하는 기판에 손을 댄 솜브라는 손가락에서 기판으로 빛의 파동을 뿜어냈다. 째깍 소리와 함께 적재 구역 문이 열렸다. 책이 문을 잡자 솜브라는 그를 속 지나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비상 전력이 가동 중이었지만 형광등이 전부 꺼져 있어 복도는 어두웠다. 솜브라는 건물을 스캔한 후 공중에 손바닥 크기의 홀로그램 화면을 띄웠다.

“카메라는 다 손을 써놨어. 이제...” 홀로그램 화면이 건물 구조도로 바뀌면서 경로가 표시되었다. “핵심 시설, 고도 보안 구역, 다 지하에 있어. 지하 15층까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13층에 있고. 거기에 아주 민감한 물건을 보관하지.”

“보안팀 절반은 널 섹터 상대하러 나갔군.” 책이 솜브라의 홀로그램 화면을 살펴보며 말했다. “남아 있는 놈들은 경계 태세일 거야.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핵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 위치를 벗어나 지원을 요청할 게 틀림없어.”

“그럼 주의를 끌어야겠네.” 솜브라가 씩 웃으며 말했다. “네 목적지로 가는 경로에 있는 경비를 유인해야겠어.”

“감시 기술은 어떻게 하고?” 책은 이 계획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거야 쉽지. 비상계단에 있는 시스템에 영상을 반복 재생할 테니, 놈들은 내가 보여 주는 영상만 보게 될 거야.” 어둠 속에서 솜브라의 손이 재빨리 움직이며 창 여러 개를 띄우고, 메뉴를 스크롤하고, 명령을 입력하고, 창을 다시 닫았다. “계단을 벗어나면 놈들이 널 발견할 거야. 하지만 그때쯤 되면 아마 다른 곳에서 바쁘겠지.”

아직도 계획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좋아. 얼른 들여보내 주거나 하라고.”

홀로그램 화면 여러 개가 다시 나타났다. 아이콘이 깜빡이고, 솜브라는 작업이 끝났는지 창을 밀어 없앴다. “됐어.”

“연락은 어떻게 하지?”

“네 통신 주파수를 알고 있어.”

물론 그러시겠지. “자주 사용하면 안 돼. 여기 시스템은 UN 대역이 아닌 주파수도 감지할 수 있으니까.”

“알려줘서 고마워.” 마지막 창을 끈 솜브라는 본 건물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켰다. “비상 계단은 문으로 들어가서 왼쪽 10미터 지점에 있어. 경보는 켜고, 감시 시스템은 해킹 완료한 상태야. 주의를 끌다가 가능한 빨리 합류할게.”

책은 고개를 끄덕인 후, 마음이 바뀌기 전에 문을 밀어 열었다.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책은 동굴 같은 공간을 바라보았다. 최소한 5층 높이는 되는 데다, 이리저리 진 그림자는 분명 화물 이송 프레임의 보행자 통

로와 난간임이 분명했다. 여기에서도 주 조명은 꺼져 있었다. 널 섹터의 공격 때문에 시설 전체가 발전기로 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비상등은 켜진 상태였지만, 잭이 있는 층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위층은 어떤지 몰랐지만,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했다.

왼쪽으로 10미터. 솜브라의 말에 따라 잭은 어두운 위쪽의 움직임을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경비 수칙에 따르면 경비들은 통제 구역에서 빠져 보안 구역 중심에 있어야 했지만, 혼자 돌아다니는 놈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었다. 그러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잭은 주의를 끝지 않고 계단참 문에 붙었다. 잠금 판에 손을 올리고 경보가 울릴 것에 대비했지만, 문은 아무 소리 없이 간단히 열릴 뿐이었다. 멀리서 금속 위에 금속이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쿵소리가 들려오자, 잭은 빠르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계단은 본 건물보다 더 어두워서 2층 아래에 빛나는 적색 등만 멀리 보였다. 잭은 손을 저었지만, 솜브라가 이미 해킹하면서 동작 감지 센서도 비활성화해 두었다. 나직하게 욱을 중얼거린 잭은 바이저를 야간 투시 모드로 전환한 후, 주위를 둘러보며 계단 지역에 자신만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제 13층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었다.

잭은 금속 계단에 발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다. 멀리서 쿵 소리가 또 들려오더니 귓가에 솜브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봐, 친구. 지금쯤 계단에 도착했겠지.”

“이동 중.”

“군인처럼 딱딱하게도 말하네.”

잭이 한숨을 쉬었다. 아나와 너무 일했는지도 모른다. “알았다. 가고 있어.”

“좋아. 13층 동작 감지기 비활성화해 뒀어.”

“알겠다.”

딸깍 소리와 함께 주파수가 먹통이 되었다. 마침내 잭은 13층에 도착했다. 문은 간단히 열렸다. 밝은 비상 조명이 켜져 있었고, 약간의 그림자에 몸을 숨기며 빠르게 복도를 가로질렀다. 모퉁이에 다다르니 좌우로 특별한 지형지물이 없는 복도가 뻗어 있었다. 잭은 위험을 감수하고 통신을 켜다. “솜브라, 길 좀 알려 주겠나?”

“잠깐만.” 바이저에 새로운 구조도가 표시되자 잭은 깜짝 놀랐다. 대체 똥지 못하는 게 뭐야? 구조도에는 복도 하나가 빙 둘러 사각형을 이루고, 거기서 여러 복도가 뻗어 나와 중앙 공간으로 이어져 있었다. “넌 여기에 있어.” 오른쪽 하단에 청색 별이 표시되었다. “경비는 여기에 있고.” 중앙 공간 주위로 적색 빛이 여러 개 생겨났다. 대부분 복도 하나에 모여 있었는데, 중앙 타워 내부의 보안 보관 구역으로 가는 주 통로인 것 같았다. 몇몇 점들은 중앙 공간 주위에 흩어져 있었다. 순찰을 도는 것이었다.

“몇 명인데?” 잭이 물었다.

“신발 사이즈도 알아봐줘?” 솜브라가 답했다. “보자... 열 명.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12명 정도 일 수 있어.” 솜브라 가까이에서 폭발음이 들려오자 잭은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다. “이런, 이따 보자!”

주파수는 나갔지만 바이저에 구조도는 계속 떠 있었다. 지도를 노려보며 정확한 정보인지 의심하던 잭은 전략을 가늠하며 구조도 크기를 줄였다. 순찰하는 경비 하나를 처치하고 우회한 뒤, 문을 지키고 있는 인원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제압한다? 이건 도박이었다. 주 초소에서 대기하는 대신 수칙을 깨고 공격자를 찾으러 가는 것. 오버워치에서 휘하 병사들이 늘상 하던 실수였다. 게다가 경비가 소란이 일어난 곳으로 가지 않더라도 잭은 처리할 수 있었다. 장비를 확인한 잭은 탄두를 기절탄으로 교체했다. 살상을 피할 수 있다면 피

#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생존자가 잭을 알아볼 수 없도록 놔들을 끝장내는 게 맞았다.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잭을 추적하기는 더 쉬워지기 때문이었다.

하는 게 최선책이었으니까. 왼쪽 길로 접어든 그는 솜브라가 동작 감지기를 비활성화했기를 바라며 첫 순찰 경비가 있을 십자형 복도로 뛰었다.

동작 감지기는 꺼져 있었지만 다른 센서 몇 개는 아직 작동 중이었다. 잭이 십자형 복도 끝에 다다르자 경보가 울렸고, 잭은 순찰 경비와 교전을 준비했다. 경비는 세 명, 널 섹터 침공에 바짝 긴장한 상태라 경보가 울리자 겁을 먹은 눈치였다. 잭이 빠르게 세 발을 발사하자 앞에 있던 두 명이 쓰러졌고, 세 번째 경비는 깜짝 놀란 것 같았다. 소총이 한 번 더 불을 뿜자 경비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셋을 뒤로한 잭은 십자형 복도를 전력 질주하며 가로질렀다. 목적지 근방에 다다른 그는 뒤로 돌아섰다. 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들이 내부 복도로 이동했기를 바라며, 그는 주 초소로 향하는 경로로 달렸다.

“솜브라!” 잭이 통신기를 켜고 소리쳤다. “경보가 확산되지 않게 해!”

대답이 없다가 갑자기 험쩍이는 음성이 답했다. “여기 애들이 기운이 넘치네! 알아서 해볼게!” 솜브라의 음성과 함께 자동 화기의 사격음이 들려왔다. 통신이 다시 끊겼다.

좋아. 잭이 생각했다. 빨리 해치워야 한다. 복도 끝에 경비 초소가 보였다. 거기에는 보호복을 착용한 6명 정도의 UN 병사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몸을 숙인 채 제어 콘솔을 살피는 중이었다. 잭은 경비에게 소총을 발사했다. 책임자로 보이는 인원들이 뒤로 넘어지자 잭은 돌진했다. 문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경비가 몸을 일으켜 대응 사격을 했고, 어깨에 총격을 입은 잭은 신음했다. 잭은 복도 이리저리로 움직이면서 바이저가 알려주는 각도로 몸을 낮추고 사격했다. 빠르게 상대의 수를 파악해보니 여섯 명. 이미 처리한 순찰조는 셋. 솜브라의 정보가 맞다면 세 명이 더 있었다.

금속 바닥을 전투화로 밟는 소리에 잭은 뒤로 돌아 옆으로 이동하며 동시에 발사했다. 빛나갔지만, 로켓의 폭발 충격으로 마지막 경비조가 비틀눰다. 잭은 경비조의 대응 사격을 굴러 피한 후, 일어나 기절탄을 발사해 모두 제압했다.

잠시 서서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잭은 솜브라의 구조도를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다. 모든 경비는 제압되었다. 첫 번째 순찰조 세 명을 포함해 나머지 경비조 모두 기절했거나 상처를 입어 전투 불능이었다.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생존자가 잭을 알아볼 수 없도록 놔들을 끝장내는 게 맞았다.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잭을 추적하기는 더 쉬워지기 때문이었다. 전에 누굴 죽인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선을 넘어 냉혹한 살인자가 될 생각은 없었다. 오늘은 말이다.

경비들 모두 구속구 같은 물건을 지니고 있었다. 잭은 누워 있는 경비 사이를 체계적으로 이동하면서 경비조가 가진 줄로 놈들을 묶었다. 어리석은 선택일 수도 있었지만 잭은 위험을 감수했다. 마지막 경비를 결박한 잭은 콘솔로 이동했다.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화면이 모두 꺼져 있었다. 자동 폐쇄되었거나 경비 중 하나가 폐쇄한 듯했다. 잭은 시험 삼아 버튼 몇 개를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다.

“숨브라. 여기 좀 도와줄 수 있나?”

“지금 바빠, 잭. 다시 연락할게.” 너무 가까이에서 들려오던 전투 소음 때문에 숨브라의 목소리를 겨우 식별할 수 있었다. 잭은 욕설을 내뿜었다. 주의를 끈다더니 발각된 것 같았다. 그랬다면... 당장 도망치는 게 이성적인 선택이었다. 잭은 경비조가 알아차리기 전에 왔던 길로 빠르게 이동해 시설을 벗어날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보관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다. 숨브라가 거짓말을 했고, 숨브라의 정보가 쓸모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폐허에서 뭔가 귀중한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건 분명했다. 여태껏 진실에 이렇게까지 가까이 온 것은 처음이었다. 기회를 차버릴 생각은 없었다.

아직 의식이 또렷하지 않던 경비 하나가 몸을 꿈틀대며 손목에 묶인 플라스틱 끈을 흔들었다. 경비 앞에 앉은 잭은 능숙하게 UN 유니폼의 주머니를 뒤졌다. 예상과는 달리 쓸 만한 물건은 없었다. 잭은 경비를 반대쪽으로 눕혀 벽을 바라보도록 했다. “저 문을 통과해야 한다.”

“난 통행증이 없어.” 잭이 체중을 실어 내리누르자, 경비는 오만상을 찌푸렸다.

“누가 가지고 있지?”

“우리한테는 없어...”

잭이 으르렁거리듯 소리를 내자 그는 빠르게 말을 이었다. “우린 그냥 경비야. 키는 두 개가 필요해. 들어가려면 추가로 허가를 받아서 첫 번째 키를 가져와야 한다고. 소위가 보조키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아무 쓸모도 없어.”

잭은 욕지거리를 하며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다. 경비는 짹 하고 비명을 지르고 태아처럼 웅크렸지만 잭은 그걸 무시했다. UN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안 시설에 이중 잠금을 쓰곤 했다. 잭은 일어나 마이크를 켰다.

“숨브라.” 침묵만이 돌아왔다. 잭은 송신기에 소리를 지르려는 걸 가까스로 참았다. “숨브라, 응답해. 젠장.”

여전히 답이 없었다. 쓴 입맛을 다신 잭은 옛 기억이 치밀어오르는 걸 다시 억눌렀다. 달아나야 한다는 뜻 일지도 몰랐다. 지원이 오기 전에 얼른 튀어야 한다는. 그러나 잭은 소위를 찾았다.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제어 콘솔 옆에 민망한 자세로 뻗어 있었다. 잭은 소위를 바로 눕혀 주머니를 뒤졌다. 아까 그 경비 말이 틀렸거나, 누가 실수를 해서 소위가 키 두 개를 모두 갖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런 행운은 따르지 않았다. 잭은 소위의 보조 열쇠를 찾았다. 가는 금선으로 덮인 검은 사각형 플라스틱 카드였다. 잠깐 동안 궁리한 끝에 잭은 콘솔의 리더기에 카드키를 제대로 꽂을 수 있었다. 화면 몇 개가 켜지고 경고가 울렸지만, 잠금 시스템은 여전히 고집스럽게도 오프라인이었다.

“숨브라, 응답해.” 잭은 다른 경비의 몸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숨브라!”

달아나야 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숨브라의 계획은 제대로 실패했고, 살아 나갈 수만 있어도 행운이었다. 잭은 콘크리트와 강화된 강철로 된 문을 노려보며 내구도가 어느 정도일지 가능해보았다. 펄스 소총은 어렵겠지만 로켓 한두 발이면...

# 경보등이 잿을 조롱하듯 번쩍였다. 침입자 경보, 침투 경고... 과거처럼 지금도 나가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잭은 다시 정신을 차렸다. 경비 초소는 UN이 폭발 저항을 최대한 끌어올려 강화했을 것이었다. 문을 폭파하려 든다면, 압력과 때문에 전부 죽을 것이었다. 잿도 포함해서 말이다. 애초에 충분한 피해도 주지 못할 테고. 초고성능 레이저 절단기로 절단하거나 솜브라가 해킹을 해줘야 했지만, 솜브라는 잿을 저버렸다. 잿은 뺏속까지 충격이 전달될 정도로 강하게 문에 주먹을 날렸다. 오랫동안 찾고 있던 해답을 이렇게 아깝게 놓치다니. 잿이 잃은 모든 것에 대한 복수를, 잿이 책임졌어야 할 모든 이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할 기회를 이렇게 놓치는 것이다...

입에 다시 쓰라림이 들었다. 폭발에 이은 침묵과 고통이 온몸에 느껴졌고, 다리가 가장 심했다. 그 통증.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통증이었다. 주위를 뒤덮은 연무도 없었다. 모두 허상이었다. 잿은 그 폭발에서 살아남은 행운아였다. 고개를 세차게 흔든 잿은 다시 통신기를 켜다.

“솜브라... 솜브라, 응답해!”

답은 없었다. 기대도 하지 않았다. 잿은 다시 콘솔로 이동해서 뭔가 빠뜨린 게 없는지 세밀하게 훑어봤다. 경보등이 잿을 조롱하듯 번쩍였다. 침입자 경보, 침투 경고... 과거처럼 지금도 나가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바닥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와 잿은 황급히 뒤를 돌아봤다. 펄스 소총을 조준하던 그는 솜브라의 장치를 알아보고는 가까스로 무기를 거두었다. 보라색 빛으로 타오르던 V 모양에서 솜브라가 나타났다.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야?”

“웬 추궁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주의를 끄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솜브라가 말했다. “그래도 친구는 저버리지 않아.”

잭은 솜브라의 말을 무시한 채 문을 가리켰다. “이걸 빨리 열어야 돼. 나머지 경비들이 들이닥칠 때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

“맞지, 맞지.” 솜브라는 주머니에서 얇은 플라스틱 장치를 꺼내 손을 갖다 댔고, 장치 표면에서 빛이 춤을 추었다. “아, 좋아. 첫 번째 열쇠는 찾았군.” 솜브라는 카드를 다른 슬롯에 밀어 넣은 후, 슬롯에서 공중에 띄운 창까지 선을 그렸다. 콘솔에 빛이 번쩍였다. 허를 찬 솜브라는 바쁘게 손가락을 움직였고, 뒤에 있던 문이 스르륵 열렸다.

잭은 벽 내부에 있던 균형추의 움직임을 느끼며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어느 구역으로 가지?”

“잠깐만.” 솜브라는 콘솔에 뭔가를 추가로 입력했다. 빛 패턴이 달라지자 고개를 끄덕인 솜브라는 빠르게 잿을 따라갔다. “4A일 거야.”

책은 이미 좁은 통로를 따라 뛰어가고 있었다. 그 통로는 거대한 상자 더미 모양의 공간 두 곳을 잇고 있었는데, 각각의 공간은 외부에 자체 기후 제어 시스템을 갖춘 채 삼엄하게 봉쇄 및 강화되어 있었다. 격리 환경이라고 유추한 책은 기억을 훑어 증거 수집 및 보관 수칙을 떠올렸다. 각각의 공간은 따로 떨어져 배치되어 있었고, 각 보관 시설은 개별 구조로 설계하여 한두 개가 뚫리더라도 나머지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라벨 간에는 연관성이 없었다. 052 옆에 FG10, 그 옆에 C-17. 그러다 봉쇄된 문 위에 새겨진 적색 글자가 책의 눈에 들어왔다. “저기다.”

“나도 보여.” 책 옆에서 걸음을 멈춘 솜브라는 공중에 홀로그램 화면을 띄웠다. 라벨 옆에 경고 기호가 여럿 보였다. 생물 재해, 인화 물질, 발암 물질, 부식성 물질. 책은 솜브라를 바라보았다.

“안에 대체 뭐가 있는 거야?”

“말했잖아. 오버워치 본부의 잔해라니까.” 손가락을 빠르게 놀리던 솜브라는 짜증을 부렸다.

“그렇긴 하지만...”

“이봐, 저렇게 덕지덕지 경고해둔 걸 보면...” 화면을 보던 솜브라는 미간을 찌푸리고는 문에 있는 제어판을 바라봤다. “아무도 엿보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

책은 인상을 썼다. 솜브라의 말이 맞았다.

“됐다!” 문 제어가 녹색으로 점등했고, 솜브라가 책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네 차례야, 책. 네 몫을 해야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게 도왔잖나. 뭘 더...”

책은 말을 멈추었다. 솜브라의 표정은 여태까지와 달리 진지했다. “여기서는 네 도움이 필요해. 저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내게 필요한 것... 그건 내가 찾아낼 수 없는 거야.”

“그럼 나는 대체 어떻게 찾으라는 거지?” 책이 추궁했다.

“너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솜브라가 우아한 손가락으로 책을 가리켰다. “넌 오버워치의 강습 사령관이었어. 본부에서 살았잖아. 모든 사람을 알고 담당했지. 무슨 물건이 있는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거기다 그 일이 있을 당시에 현장에 있었고. 그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을 알아볼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책은 한동안 솜브라를 바라봤다. “지금 농담이지?”

“내 정보에 의하면, 여긴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있어. UN은 그 폭발 사건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이 증거품을 보관하고 있는 건데, 다들 바빠서 조사할 엄두도 못 낼 정도로空空 가둬 놔다고. 하지만 존재할 리 없는 존재인 너는 다르잖아? 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 난 알아.”

비약이 심하긴 했지만 해볼 만은 했다. 이 잔해에서 그날의 진실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책은 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불탄 콘크리트와 그을린 금속의 냄새가 책의 폐 속으로 파고들어 숨이 막혀왔다. 폭발 처럼 눈부신 섬광이 비치고, 귀에서는 들릴 리 없는 이명이 울리자 책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솜브라가 통신기로 뭐라고 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책은 여기 한가운데 있었다. 거의 죽을 뻔했다. 콘크리트 아래 파묻혀 엄지보다도 굵은 철근이 허벅지에 꿰뚫려 움직일 수도 없었다. 몸은 오래전에 나왔지만,

# 노튼이 말했던 운이 드디어 바닥을 드러낸 것이었다. 잭에게 일어난 모든 불운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다.

그의 몸을 수놓은 수많은 별것 아닌 타박상과 자상과는 달리 옛 상처의 고통은 망령처럼 그를 괴롭혔다. 잭은 콘크리트를 들어올리려 용쓰던 것을 떠올렸다. 움쭉달싹 못하는 신세로 죽어가던, 아니, 이미 죽었던 것일지도. 그때까지 저지른 수많은 바보짓에 딱 어울리는 결말이었다. 잭은 결코 일을 바로잡지 못했다. 제때에 지켜야 할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고, 멍청하게도 레예스와 힘을 합쳐야 할 시기에 레예스와의 싸움을 피하기에만 바빴다.

잭은 아직도 레예스의 주먹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주먹을 막은 후 잭도 주먹을 내질렀지만, 레예스에게 닿기 전에 갑자기 세상이 연기와 화염에 휩싸였다. 마지막으로 본 건 레예스의 얼굴이었다. 다음 순간 잭은 잡동사니와 함께 뒤로 날아가 기절했고, 정신을 차려 보니 콘크리트 잔해 아래 갇혀 있었다. 피를 흘리고 타박상을 입은 그는 죽음을 확신했다.

노튼이 말했던 운이 드디어 바닥을 드러낸 것이었다. 잭에게 일어난 모든 불운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잭은 죽지 않았고, 그렇다는 뜻은 레예스도 아직 갇힌 채 생존했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폭발 지점에서 멀리 있던 다른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살짝 팔을 움직여본 잭은 보통 힘으로, 그리고 힘을 쥐 움직였다. 다음으로 철근에 꽂히지 않은 발을 빼냈다.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잭은 지렛대 원리로 콘크리트 판을 올려 넘겼다. 짙어지는 연기에 먼지가 잔뜩 섞여 들었다. 귀가 아직 멍멍해서 불타는 소리나 비명은 들리지 않았지만 열기는 느껴졌다. 잭은 다음으로 다리에 박혀 있던 철근을 빼냈다. 눈을 가린 채 비틀거리며 일어난 그는 벽이 있던 곳에 타오르는 화염을 바라보았다.

보관 구역이었다. 잭이 걸으면서 흘뜨린 금속 바닥에 쌓인 먼지가 공중에 가득했다. 보관 구역에는 다양한 크기의 상자와 박스가 불규칙하게 쌓여있었다. 쓰레기통 몇 개가 상자 더미 근처로 밀려나 있었고, 콘크리트 덩어리에서 뒤틀린 철골이 튀어나와 있었다. 보관 구역은 그때 그 폭발처럼 혼돈 그 자체였지만, 폭발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솜브라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봐, 잭. 말 좀 해봐... 별일 없지?”

“그래.” 잭은 먼지 속에서 목을 가다듬었다. 이번에는 기억이 만들어낸 환영이 아니라 진짜 먼지였다. “너 정말 뭘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 거 맞아?”

“내가 알았다면 널 왜 데려왔겠어.” 솜브라는 대답한 후 잠시 말이 없었다. “재촉하긴 싫은데,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

“그래.” 잭은 방을 둘러봤다. 무질서한 잡동사니가 너무 많았다. 누군가 대충 상자에 넣어 치우다가 그냥 문을 잠가 버린 것 같았다.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랐다. 솜브라 말이 맞았다는 뜻일지도 몰랐다. 분명 굳이 보관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니까. 잭은 어깨를 움직여 근육을 풀고 가까이 있는 상자를 바라봤다. “작업 시작한다.”

잭이 뚜껑을 뜯어내자 먼지와 재가 얼굴을 덮쳐왔고, 그는 안에 있는 물건을 살피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책상에 있었을 불탄 파티클 보드, 오버워치 로고가 아직 선명한 반쯤 불탄 서류 더미... 베일리스가 아버지의 날에 자식한테 받은 아빠 최고 커피 머그는 기적적으로 깨지지 않고 멀쩡했다. 쓰라리게도 평범한 물건 들뿐이었다. 다음 상자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도. 그 다음 상자에는 녹은 스테이플러가 있었다. 녹은 플라스틱에 아직 타다 남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안 봐도 알았다. 4층에서 반출 금지!!!! 캐서디는 과거에 그 종이를 사이판까지 가져가서 해변에서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널 섹터 공격에 저항하던 경비들이 빠지고 있어.” 솜브라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야.” 잭이 다른 상자를 뜯어 열며 답했다.

“우리 나가는 시간도 생각해야지.” 솜브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간과하지 말라고, 잭.”

“알았어.” 잭이 상자를 헤집었다. 종이, 박살 난 데이터 드라이브, 녹은 플라스틱 덩어리. 다음 상자. 솜브라가 옳았다. 서둘러야 했지만, 무엇인지 모를 그 물건을 찾고자 하는 의지는 잭이 더 강했다.

다음 상자에는 종이, 화면에 녹은 유리 조각으로 꽂 차 있었다. 바닥에는 켈리의 화려한 커피 머신이 망가진 채 있었다. 켈리가 사람들에게 한 잔에 1유로씩 받아서, 전화 옆에 둔 종이컵이 동전으로 넘쳐나게 했던 바로 그 물건. 다음 상자는 누군가의 책상에서 챙긴 물건으로 꽂 차 있었다. 녹은 키보드, 박살 난 전화, 오버워치 발급 사원증. 사원증은 더러워지고 검게 그을려 누구 것인지 확인이 힘들었다. 잭은 사원증을 옆에 던져놓고 계속 찾았다.

“이제 10분 남았어.” 솜브라가 말했다. “이것도 아슬아슬해.”

잭이 몸을 세우자 먼지가 폭발에 대한 기억처럼 잔뜩 달라붙어 있었다. 철골에 찢렸던 다리가 타는 듯이 아파왔다.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 여태까지는 전부 익숙한 오버워치의 흔적뿐이었다. 잭은 다른 상자 몇 개를 더 살펴봤다. 녹아내린 데이터 드라이브, 그을린 키보드, 마지막으로 찌그러지고 불에 그을린 황동 카트리지 케이스.

“5분.” 솜브라가 말했다.

“알았어.”

“진짜야. 놈들이 빠르게 오고 있어.”

“알았다고.” 잭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바닥에서 튀어나온 것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판 위로 올라갔다. 다음 상자에는 검게 그을리고 망가진 사무용 기계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 옆 상자에는 서류 뭉치와, 야자수 장식이 붙은 탁상 시계가 녹은 금속 덩어리가 있었다. 재무 팀장이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골프 토너먼트에서 2등으로 받은 상품이었다. 그 아래에는 종이와 나무 조각, 그 아래에는 빛을 빨아들이는 금속 같은 것이 있었다.



책은 찡그리며 그 물건을 꺼내 들었다. 평평한 원판. 지뢰만한 크기에 모양도 비슷했지만 지뢰는 확실히 아니었다. 몸체는 대부분 철흑처럼 검은색이었는데 고무 같은 재질이었고, 크기에 비해 무거웠다. 가장자리만 은색으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식별 가능한 표시도, 이음새도 없어서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없었다. 오버워치의 것도 UN의 물건도 아닌,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이게 바로 솜브라가 말한 물건임이 틀림없었다.

몸을 돌린 책은 문을 향하며 통신기에 말했다. “찾았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허공에 손가락을 휘두르고 있는 솜브라가 보였다. “3분 남았어.”

“그럼 빨리 가자.”

둘은 촌각을 다투며 계단을 올라 건물을 나왔다. 솜브라가 선두에서 이동하며 골목을 지나 근처 지붕에 올라 걸음을 멈추었다. 다시 한 번 홀로그램 화면을 켜 솜브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서 미간을 찌푸린 채 이미지를 지켜봤다. 책은 뛰고 있는 자신의 영상이 보안 영상에 잡힌 것을 어깨너머로 확인하고 표정을 구겼다. 하지만 그 영상은 지적대면서 곧 보이지 않게 되었고, 화면이 녹색으로 깜빡이자 솜브라는 그것을 밀어 없앴다. “삭제했군.”

“당연하지.” 솜브라는 답한 후 다음 지붕으로 뛰어넘었다.

‘당연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책은 불평하지 않았다. 책은 솜브라의 발걸음이 느려질 때까지 건물에서 건물로 뛰어했다. 하늘이 밝아졌다. 화재가 아니었다. 해가 뜨고 있었다. 책은 둘이 지나쳐온 곳을 돌아보았다. 보관 시설 주위로 드론들이 선회하고 있었지만, 둘이 충분히 먼 곳에 있어서 발각되지 않았다. 책이 보고 있던 곳을 솜브라도 보더니 머리를 쓸어넘겼다.

“걱정 마, 보안 시스템에 선물을 하나 남겨놨으니까. 우리는 신경 안 쓸 거야.”

“아무도 그 선물을 찾지 못했으면 좋겠군.” 책은 통명스럽게 말했다. 솜브라의 실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정말 걱정이 된다기보다 반사적으로 나온 대답이었다. 새벽 냄새가 물씬 풍기면서 연료 타는 냄새, 부서진 콘크리트 냄새, 화약 냄새가 열어졌다. 동쪽에는 널 섹터 본대가 도시를 공격해 생긴 연기가 흩어지고 있었고, 소방대원들의 노력으로 색도 흑색에서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둘은 운이 좋았다. 널 섹터가 좀 더 반짝이는 목표물에 다시 집중하느라 취리히 사람들은 대부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적어도 이번에는.

솜브라가 목을 가다듬었다. “자, 나한테 줄 거 있지?”

“그래.” 책이 재킷 주머니에서 은색 테두리 디스크를 꺼냈다. 흑색 코팅 부분은 햇빛을 흡수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더욱 심상치 않아 보였다.

솜브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건을 보았지만 손을 대려고는 하지 않았다. “정말 이게 맞아?”

“거기 없을 물건 찾아보라면서?” 책이 말했다. “이건 오버워치가 만든 것도, UN 무기고에 있던 것도 아니야. 그러니 너도 이게 뭔지 모른다면... 이게 맞겠지. 이제 네가 빛을 갚을 차례다.”

“뭔지 모르겠는데.” 솜브라가 말했다. “스캔해도 되지?”

책은 고개를 저었다. “빛부터 갚으시지.”

“그러지 그럼.” 잠시 생각하던 솜브라가 말을 이었다. “누가 오버워치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해?”

# 과거의 기억이 몰려오자 잭은 다시 말을 멈췄다. 레예스가 분노에 차 내지른 주먹과, 입술에서 느껴지던 피의 맛. 그리고 폭발. 모든 게 날아가기 전, 레예스의 눈은 충격으로 커져 있었다.

잭은 머뭇거렸다. “당시에는 누구나 탈론이라고 생각했어. 레예스나 오디오런이 도왔다고. 그게 가능성이 제일 크긴 하지만, 뭔가 늘 찝찝했지. 그런데 네가 준 정보에 의하면 그게 아닌 것 같군. 그러니 탈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겠지.”

“넌 그 말을 믿었지.” 솜브라가 말했다. “내가 정보를 공유하기 전부터도.”

과거의 기억이 몰려오자 잭은 다시 말을 멈췄다. 레예스가 분노에 차 내지른 주먹과, 입술에서 느껴지던 피의 맛. 그리고 폭발. 모든 게 날아가기 전, 레예스의 눈은 충격으로 커져 있었다. “나는 폭발이 일어났을 때 레예스와 있었다. 그를 보았지. 나처럼 놀란 얼굴이었어.” 잭은 기억을 떨쳐내듯 고개를 저었다. “탈론이었다면 레예스도 알았을 거야.”

솜브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스캔 좀 해볼게.”

잭이 디스크를 앞으로 내밀었고, 솜브라가 다가와 스캔을 시작했다. 솜브라의 손에 있던 빛이 디스크 표면 속으로 사라졌다. 홀로그램 화면을 켜자 디스크 표면에 데이터가 맴돌다가 사라지고... 이상한 문양이 천천히 나타났다. 눈을 형상화한 그림이었는데, 동공 위 아래에 세 개씩 점이 있었다.

“이거 본 적 있어.” 솜브라가 말했다. “신타래가 탈론을 지나 그 너머로 이어져 있군. 탈론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에 대한 단서와 은밀한 전언이야. 이래서 내가 너한테도 정보를 보낸 거라고. 너라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대가를 주지 않으면 나와 일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그리고 이거...” 솜브라는 턱으로 디스크를 가리켰다. “이 문양이 증거야. 놈들의 문양이지. 저걸 추적하면 놈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나라면 오아시스부터 탐색을 시작해볼 텐데. 이 디스크는 해킹하는 대로 연락할게.” 화면을 없앤 솜브라가 손을 내밀었다. “이 정도면 빛은 갇혔다?”

잭은 디스크와 솜브라의 손을 번갈아 바라봤다. 단서나 은밀한 전언, 가설이 아닌, 추적 가능하고 실존하는 물건. 잭이 찾던 거였다. 현재 알아낸 정보는 별로 없었지만, 문양 하나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사

람은 바로 잭이었다.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잭밖에 남지 않았다. 잭은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많은 희생, 죽어간 모든 이들을 위해 기꺼이 추적할 생각이었다. 잭은 고개를 끄덕이며 솜브라에게 디스크를 건넸다. “그래.”

“고마워.” 잭이 항의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솜브라는 놀란 것처럼 대답했다. 지붕 가장자리에 뭔가를 던진 솜브라의 모습은 이내 사라졌다.

잭은 가볍게 고개를 흔들었다. 상관없었다. 솜브라는 잭이 원하던 것을 주었다. 실체가 있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을. 높고 지쳤지만, 잭은 길을 찾을 것이다. 어쨌든 잭은 항상 행운아였으니까.